

# ‘성공적인 경영전략 · 맛있는 최고경영자’

## 대진대학교 최고경영자(CEO) 과정 모집

대진대학교는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내용은 1년과정(2학기)으로 1학기 주1회 15주 수업을 실시하며 등록금은 1년과정 200만원이며 여성기업인과 부부원생은 25% 학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학력 및 전공 불문하고 각종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의원, 각종 사회단체 간부 및 각계 지도자, 자영업 및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강의주제는 새로운 기업환경의 미래, 성공적인 경영전략, 맛있는 최고경영자이며 새로운 기업환경의 미래 강의내용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대체, 디지털경제와 한국경제의 선택, 21세기 성공적인 경영자의 조건, 글로벌 경영도전, 경기부부의 기업환경과 지원제도 등이다.

성공적인 경영전략 강의내용은 경영정보, 인사·조직, 회계, 마케팅, 국제경영, 재무, 생산관리, 벤처창업 및 경영, 코스닥 등록 등이다. 맛있는 최고경영자는 지도자의 스피치, 성공적인 경영화술, 스포츠댄스, 부부생활의 지혜, 법과 경제활동, 부동산 거래, 유머 및 건강관리, 리더쉽관련 내용 등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등이며 특전은 대진대학교 총장명의



영화배우 엄영란 씨 초청 특강 장면.

의 수료증 수여, 대진대학교 대학원 동문자격 부여, CEO과정 골프회(대경회), 산악회 등 동아리 활동 참여 자격부여, 대진대학교 산하 제반 부속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가능, 아티세미나, 국내·외 산업체

의수로 수여, 대진대학교 대학원 동문자격 부여, CEO과정 골프회(대경회), 산악회 등 동아리 활동 참여 자격부여, 대진대학교 산하 제반 부속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가능, 아티세미나, 국내·외 산업체

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아파트 시행사가 배상하라”

## 의정부지법 판결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포천시 송우리 고층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서모씨가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공은 박·서씨에게 각각 6000여만원과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 또는 유지로 인해 이웃 토지의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일조 피해를 받게 된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난다면 위법한 기해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가 건축행위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대규모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것은 사회통념상 인용되

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들은 “각각 7천여평과 1800여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대과, 열매야채, 시금치 등을 재배했으나 인근에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뒤부터 일조량이 줄어들어 농작물이 상품성을 잃었다”며, 각각 3억6천여만원과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 1개월간, 캠페인 및 집중단속, 농관원 포천·연천출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소장 권진선)은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및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4명과 명예감시원 110명을 동원하여 1월 18일부터 설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단속은 포천·연천지역내 대형마트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점·투명하게 실시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새 인물

## 제10대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임

# 여성단체 위상 정립위해 노력 2월 7일 취임식 후 본격 활동

“위에서 지시보다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10대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돼 2년 임기를 시작한 김순임(55·사진)회장의 각오다.

포천시 11개 여성단체장과 운영위원 4명등 모두 15명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여성단체협의회장선거는 김순임 후보가 9표, 최계옥 후보가 6표를 얻어 김순임 후보가 선출됐다.

신임 김 회장은 포천시여성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시민안전봉사대 구호봉사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경력도 만만치 않다. 부회장 8년, 총무 2년을 봉사했다.

김 회장은 “전임 회장님들의 장점을 분반아 추진하고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전임 회장님들과 의논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회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시에 맡겨 두었던 직인과 통장을 찾아왔으며 여성단체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무실이 없어 여성회관 폐백실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빠른 시일내 극복하여 번듯한 사무실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김 회장은 “외국에서 결혼하여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글부류교육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어 데



리고 온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여성단체가 앞장서겠다”며 “그동안 사라졌던 알뜰시장을 분기별로 개장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기금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제10대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순임 ▶부회장 박명자 ▶부회장 이계순 ▶총무 조민영 ▶감사 송석규 ▶감사 열영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산업안전보건 캐치프레이즈 공모

## 1월12일부터 2월12일까지 홈페이지에 등록접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7월2일부터 6일까지 COEX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제40회 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를 상징하고 근로자·사업주·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이다. 참가자격은 전국민이며 작품형식은 국문으로 행사모토와 행사주제를 표현해야 한다. 행사모토는 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를 상징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함축적이거나 하고 행사주제는 행사모토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관심분야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문 형태이어야 한다.

작품분량은 1인 2점 이내로 제한하며 신청요령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응모신청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편(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2편(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 3편(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이며 당선작은 2월2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웃음강의 첫날

무엇인가 새롭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웃어본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강의 듣고 다른 사람 강의 듣고 여기 저기 배운거 토대로 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 모셔놓고 웃음과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처음 보는 분들 앞에 낯선 모습으로 웃지만 며칠동안 교안 작성으로 이것 저것 해보았던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먼저 앞선다.

실버타운 실장님의 격려로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박수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 하나 펼쳐 갈때면

어르신의 입가에도 웃음이 절로 스민다. 성함을 물어보고 옆에 계신 분들의 성함도 소리 질러 불러보고 서로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초등학교 입학전 모습들이다.

함께 배워 배우고 웃음은 조금씩 조금씩 이 조금은 어설피지만 조금 지나니

실버타운에서 웃음과 레크레이션은 보약보다 좋은 웃음 선물

낯선 어르신과의 기쁨행만 만남 후에 다시 읽고 싶은 '기대' 가득

지나 갔는지..이마에 긴장 땀이 가 땀 한줄기 흐른다. 다시 볼 수 있지요~ ~ 또 언제 오지요~



김순임 부회장직인 내내 연수부장

# 법고창신(法古創新)

실학파의 대가 연암 박지원이 쓴 초정집서(楚亭集序)에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옛 법도에 맞게 하되,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지금까지 약 이백년 전에 후학들에게 가르쳐준 철학(哲學)으로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創造)하라는 계도의 뜻이 담긴 말로 알려져 있다.

연암이 활동하던 18세기 당시에 문체의 모방과 관련한 화답합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연암은 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목은 틀에 빠지는 것이 탈이고 새 문체(文體)를 만드는 사람은 상도(常道)에 어긋남이 걱정이다. 진실로 옛것을 본받으면서도 능히 변화(變化)시킬 것을 알고 새 문체를 만들면서도 고전에 근거(根據)를 단단히 지금 그 사람의 글도 고인(古人)의 글과 같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훌륭한 문학작품이란 항상 전통적인 영감 하에서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그것의 독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고문이라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모방이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18세기 조선 사회는 한(漢)·당(唐)의 문체를 모방하고 그것과 비슷하게 피려는 풍조가 민연해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런 연암의 노력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문화발전과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철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례로 문화는 문학작품이나 예술적 행위의 전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이나 생활,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활동과정이나 그 속에서 이룩한 물질적·정신적 소산모두를 일컫는 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문·예술·종교·도덕 등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화라는 말은

정신활동을 뜻하는 경우와 생활양식을 총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용어 가운데 한국문화, 대중문화, 바깥 문화, 자동차 문화, 청소년 문화, 문화생활, 문화제, 인간문화제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의 특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창조된 것이며 사회구성원들 간에 상호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공통

적 경향이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면 시공간적 면에서 볼 때 문화는 항상 변화하고 전승과정에서 새로움이 첨가되거나 기존의 것이 소멸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는 인간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형성 후에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특정세대, 특정사회의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발생되는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긴 것이므로 지리적 인 면은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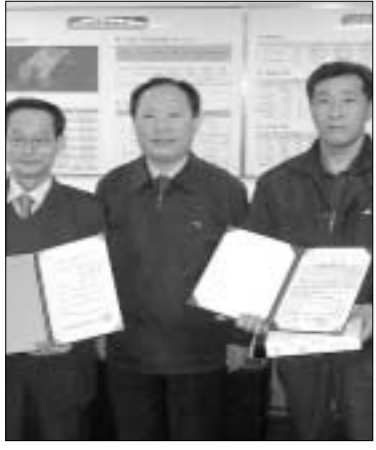
이런 면에서 우리 포천의 지역문화는 시대적 생활상, 존재하는 문화화, 전승된 관습, 구전문화, 학문적 학파의 존재, 예술작품 등 현재 우리의 향유하는 모든 것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분명히 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포천 지역사회가 우리지역 내에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이나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정작하게 발전시키는 일에는 자치단체는 물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소홀히 했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



이희용 포천연구원 회장

# (주)일진정공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3배 달성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1월19일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 (주)일진정공(소장 원성근)에 대하여 무재해 달성인증서 및 무재해운동 추진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지도원장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무재해 3배를 달성한 (주)일진정공은 2003년10월8일부터 2006년11월20일까지 소장 및 전 직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1천140일동안 무재해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여 근로의욕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및 경쟁력 활성화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본 인증서 수여식 축사에서 무재해를 달성한 (주)일진정공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무재해 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국민건강보험료 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1월부터 보험료를 6.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08년까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2005년말 47%수준인 보장율을 71.5%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추진의 일환이다.

2005년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했고, 동시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했다.

2007년 보험료 인상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부과등급(1-100등급)별 적용점수를 폐지하고 보험료를 산정해 2006년 131.4원을 2007년도에는 139.9원으로 6.5%인상했으며 직장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을 폐지하고 실제 평균보수월액 X 보험료율로 4.48%에서 4.77%로 6.5% 인상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비리없는 한해 만들자’

## 포천경찰서, 자체사고 예방 자정 결의대회



포천경찰서(서장 김중해)는 1월9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및 지구대장 등 11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날 결의대회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등 포천경찰서’로 거듭나도록 다짐했으며, 최근 불거진 일부 경찰관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피의자 가혹행위 등 14개 비위행위 유형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단 한건의 자체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자체사고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시청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들을 반성해보고 반문교사의 기회로 삼았다. 김 서장은 훈시를 통해 “전직원이 Clean·물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비리없는 한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